

우리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신장이 아닌 심장으로 농구하는 MBC 농구동호회를 소개합니다

글. 노현우 MBC 미디어IT솔루션팀 차장



전 NBA 농구선수 앨런 아이버슨(Allen Iverson) / 출처 : image.complex.com

“농구는 신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 앨런 아이버슨 -

농구동호회 소개를 의뢰받고 나서, ‘왜 농구동호회에 소개 요청을 했을까’하는 의문에 회사 동호회 게시판을 찾아보니 명맥을 이어오는 동호회는 극소수였습니다. 그중 어떤 동호회는 2016년경에 동호회를 마무리한다는 게시글을 보았습니다.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즐길 수 있는 농구를 평균 40세가 넘는 회원님들이 유지하고 있어 전혀 남 일 같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계기로 참여하고 있지 못한 회원님들, 그리고 농구에 관심이 많은 신입회원분이 많이 참석해주시길 바라며 MBC 농구동호회를 소개하겠습니다.

동호회 이름은?

MBC 농구동호회는 그대로 ‘MBC 농구동호회’입니다. MBC 동호회들은 특별한 이름 없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MBC 농구동호회만의 특별한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MBC에 농구동호회가 2개도 아닌데 새로운 이름이 있어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순정의 느낌이 들어 ‘MBC 농구동호회’가 지금에 더 맞았어 보입니다. 농구 유니폼에도 ‘MBC’라는 세 글자 뿐입니다.



MBC 농구동호회 유니폼

가입은 어떻게 하죠?

농구를 좋아하는 분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모집 시기는 없고, 오시고 싶을 때 오시면 됩니다. 1게임 뛰어보시고, 결정 하셔도 좋습니다. 농구코트를 뛰어다니실 수 있는 체력만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말고 와주세요. 평균연령이 40살이라서 많이 못 뛰니 체력 걱정도 금물입니다. (그렇다고 열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농구에 대한 열정은 최고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으시죠?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동호회 회장님, 총무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체육관 및 농구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 바랍니다.

농구는 언제 어디서 하나요?

코로나 이전에는 회사 근처 중고등학교를 대관하여 2주에 한 번씩 모여 게임을 하였고, 코로나 직후 방역지침에 따라 2020년은 거의 모임이 없었습니다. 이후 코로나 단계 완화로 실내체육시설이 허용되어 회사에서 25km 떨어진 김포에 있는 사설 체육관에서 농구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마스크를 쓰고 하는 불편함은 있었지만, 오랜만에 농구로 다들 들떠서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곳에 총무님이 어렵게 농구장을 구해서 매주 수요일 저녁 2시간 이상 힘차게 농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석하나요?

MBC 농구동호회에는 라디오PD, 경영, 예능PD, 카메라감독, 아나운서, 드라마PD, 기자, 방송기술 등 다양한 직무의 직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인 직원들뿐만 아니라, 회사에 다녔던 분들도 꾸준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구로 인연을 맺은 SBS 재직자분들도 참석해주셔서 같이 농구하고 있습니다. 번외 게임으로 국회팀, 동서식품 등과 교류전도 진행하였습니다.

농구동호회 활동의 장점은?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회사 내 여러 직무의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기술부서 또는 콘텐츠 사업부서 분들과 업무 교류가 있었으나, 농구동호회를 시작하면서 사내 여러 부문의 회원들을 알게



주어진 시간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농구하는 회원들



공을 향해 슛~~!



경기 전 스트레칭 및 몸풀기

되었습니다. 동호회 활동으로 소통할 수 있는 동료들이 많아져서 업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다음 장점은 저렴한 비용으로 최신의 실내 농구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동호회는 체육관 대관료로 인해 회비가 4~5만 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내 농구동호회는 이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농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점은 체력 강화입니다. 쉴 새 없이 2시간 동안 뛰다 보면,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구를 하게 되면 지구력 강화, 신체 밸런스 강화, 심장 건강 증진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사람과 부딪히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가장 조심할 부분은 부상입니다. 동호회 평균연령이 높아지면서 작고 큰

부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운동하기 전 개인 스트레칭과 보호대 착용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험하고 무리한 파울은 최대한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의욕만 앞선 체공이 아닌 상대방 몸으로 돌진하게 되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동호회에서는 위험한 파울을 막기 위해 슛동작에서 파울하는 경우 자유투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MBC 농구동호회 소개였습니다

경력으로 입사한 저는 입사하고 2년 후에 농구동호회를 알았습니다. 2년 더 빨리 알았더라면 회사생활이 더 즐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글을 보고 MBC 농구동호회에 관심이 있거나 교류전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평균연령은 높아만 가고, 신입회원들은 오질 않아 걱정이었는데, 최근 기술 신입사원 2명이 농구동호회에 가입하였습니다. (제가 강요한 건 아니고, 그냥 소개만 해주었습니다)

신입사원들이 자주 나올 수 있는 농구동호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신입회원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호회 분들에게 당부 말씀드리자면 다치지 않고, 무릎 아프지 않고, 발목 아프지 않고, 허리 아프지 않고, 어깨 아프지 않고, 보호대 꼭 하시고,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농구하는 날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MBC 농구동호회를 응원해주는 회원분들이 많이 참석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



MBC 농구동호회 단체사진